



집안에 맞이한 며느리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정 기 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6월 3일 제21 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국민유권자는 대통령선거를 잘해야 한다. 집안 살림은 며느리가 안주인으로 살림하고, 나라살림은 국민유권자가 선출한 대통령이 한다. 집안에 아들이 장성하면 결혼하여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그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집안이 번영하고 재산이 불어나 윤택한 집안 살림이 된다. 결혼으로 들러온 며느리는 건강하여 집안을 이어갈 후손인 자녀를 생산해야 하며, 밖에서 벌어들인 재화를 이용해 살림을 현명하게 하며 아껴 쓰고 저축해 집안 살림을 부유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집안에 새로 맞이하는 며느리는 간택하여 적임자를 맞이한다. 나라 살림을 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국민유권자가 투표하여 선출하는 데 출사표를 낸 후보들 중에서 적임자에게 기표하여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 강점기를 거쳐 1945년 8·15 해방이 되었으며 미 군정 시대를 거쳐 1948년 5월 10일에 국민이 초대국회의원을 선출했으며 초대국회에서 대한민국헌법을 만들어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했으며 이날이 제헌절이다. 국민이 선거를 한 것은 1948년 5월 10일에 한 초대 국회의원 선거가 처음이다. 그 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대통령선거를 했는데 초대대통령으로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당선되었으며 당선된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로 국가의 정치기반을 닦았으며,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오늘날까지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와 대립하며 미국의 도움을 받으며 눈부신 발전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5·16 군사 구태타로 구태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민선 대통령에 되어 18년간 장기 집권하다가 대통령의 암살로 막을 내렸고 전두환 군사정부가 들어섰다가 다시 민선으로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그 후 국민유권자가 대통령선거를 하는데 이번 6월 3일에는 제21대 대통령을 민선으로 국민유권자가 선출한다.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 지방 단체장 선거를 비롯한 선거를 여러 차례 했

망종, 그리고 현충일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은

박 재 영

무안경찰서 경무계장 겸감



망종(芒種)은 24절기 중 아홉번째에 해당하는 절기로 소만(小滿)과 하지(夏至) 사이에 들어 있다. 망종은 보리를 베고 벼씨를 뿌리기에 적당한 시기를 의미한다. 우리 조상들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언제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해야 할지를 24절기로 구별해 놓았다.

또한 고려 현종 5년 6월 6일에 순직한 병사의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나라를 수호하다가 희생당한 이들을 기리는 현충일을 망종 절기에 정한 이유도 이와 관련이 깊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1,000명이 넘는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독립운동과 6. 25 전쟁을 겪으면서 제때 보리를 수확하고 벼씨를 뿌릴 수 있는 시기는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망종 절기가 단순히 농사 시기를 의미하기 보다는 우리 민족의 삶, 문화와 관련이 깊듯이 현충일 또한 단순한 국경일을 아닌 순국선열과 전몰장병 등을 추모하는 국가 추념일로 정하고 있다.

망종이 생명과 수확의 시작을 상징하는 절기라면 현충일은 추모와 희생의 정서를 담은 날이다.

다가오는 6월 6일은 제70주년 현충일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 후세대로서 잊지않고 기억하기 위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제안한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상가 및 주택, 사람이 많이 모이는 터미널, 역,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태극기 걸기를 제안한다. 또한 도심 곳곳마다 있는 옥외 전광판 및 안전문자 발신을 통해 태극기 걸기 운동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현충일에는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해 그들의 희생을 꼭 기억하고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쇼(No-show) 사기,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김 병 관

강진경찰서 범죄예방계 경사



백한 범죄 행위이다.

노쇼 사기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예약금 제도를 활성화해 소액의 예약금을 사전에 결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예약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

둘째, 전화 예약이나 온라인 예약 시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해 대량 예약이나 의심스러운 요청은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누군가에게 한 번의 노쇼가 가게 운영을 위협하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모두가 책임감 있는 예약 문화를 실천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야 할 때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고을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윤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 순 열 편집국장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부취재본부		전남 나주시 왕건길 33-14 (061) 333-0805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풀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애프레스